

올림픽 셋째날 한국 선수단 '노메달'

유도 안창림 등 16강 탈락·펜싱 김지연 8강 좌절
양궁 '간판' 김우진 개인전 32강서 충격패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셋째날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노메달'에 그쳤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 유도 안창림(22·수원시청)과 김잔디(25·양주시청)가 모두 16강에서 탈락했다.
2012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김지연(28·익산시청)도 16강에서 일찌감치 짐을 썼다.
'재일교포 3세' 안창림은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의 카리오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유도 남자 73kg급 16강전에서 벨기에의 디르크 반 티셀에 절반패를 당했다.
세계랭킹 1위인 안창림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됐으나 세계랭킹 18위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김잔디(25·양주시청)는 유도 여자 57kg급 16강에서 브라질의 라파엘라 실바(세계랭킹 14위)에게 고전 끝에 절반을 내주고 패했다.
세계랭킹 2위인 김잔디는 첫 경기를 부전승으로 올라왔지만, 브라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세계랭킹 14위 실바에게 충격패를 당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에 '깜짝 금메달'을 선사한 김지연은 카리오카 아레나에서 열린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16강에서 로레타 콜로타(이탈리아)에게 13-15로 졌다.
런던올림픽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김영호 이후 12년만에 한국 펜싱에 금메달을 선사한 김지연은 이번에는 조기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함께 출전한 서지연(23·안산시청)과 황선아(27·익산시청)는 32강에서 각각 12-15, 11-15로 패배했다.
양궁에서도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 김우진(24·청주시청)은 개인전 32강에서 리아우 예가 아가타(인도네시아)에게 2-6(29-27 27-28 24-27 27-28)으로 저 탈락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우진은 개인전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으나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다.
세계랭킹 1위 김우진의 32강 탈락은 이번 올림픽 양궁의 최대 이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우진의 탈락으로 남자 개인전 금·은·동 석권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반면 여자부 '에이스' 기보배(28·광주시청)는 무난히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64강전에서 케냐의 세자나 인와르를 7-1(26-24 26-23 26-26 27-26)로 꺾은 기보배는 32강전에서 베로니카 마르첸코(우크라이나)를 세트스코어 6-2(29-27 27-27 29-29 29-25)로 제압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고 이번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는 올림픽 양궁 사상 첫 개인전 2연패 도전을 이어갔다.
한국 남자 역도의 한병목(25·경남남도청)은 리우 센트루 파빌리온에서 열린 대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에서 열린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펜싱 사브르 여자 개인 대한민국 김지연과 이탈리아의 로레타 콜로타의 16강 경기. 한국 김지연이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고 있다. 이날 김지연은 이탈리아의 로레타 콜로타 상대로 13-15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회 역도 남자 62kg급에서 인상 130kg, 용상 150kg 합계 280kg을 들어 9위에 그쳤다.
여자 탁구의 서효원(29·렛츠런)은 리우센트루 파빌리온에서 열린 대회 탁구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미국의 릴리 장을 세트스코어 4-1(11-8 11-8 7-11 11-7 11-6)로 제압했다.
8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핸드볼은 2연패에 빠졌다. 임영철

(56)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퓨처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핸드볼 여자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웨덴에 28-31로 패했다.
한편 이날 '노메달'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유지한 한국은 종합 8위를 탈락했다. 미국이 금 5개, 은 7개, 동 7개로 종합 1위를 질주했고, 중국(금 5개·은 3개·동 5개)과 호주(금 4개·동 3개)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김민근기자



체조선수 이은주, 북한 선수 홍은정과 셀카 '화제'

한국 여자 체조선수 이은주(17)가 북한 여자 체조선수 홍은정(27)과 셀프카메라를 찍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미국 CNN은 지난 8일(현지시간) 두 명의 체조선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레나에서 훈련을 하는 도중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유라시아그룹의 회장 이안 브레머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이유"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게시물은 1만7311번 리트윗(재공유)되며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다. 마음에 든다는 표시를 한 사용자도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1만8180명을 돌파한 상태다.
미국 언론 '허핑턴포스트'는 "남북 체조선수의 사진이 외교 점수(1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남한과 북한 체조선수가 이 올림픽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표현했다.

/김민근기자

썬양, 자유형 200m 아시아인 최초 금메달

중국의 수영 스타 썬양(25·중국)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올림픽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썬양은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66로 터치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아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썬양이 처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이 은메달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박태환과 썬양이 공동 은메달을 딴 것이 역대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아시아인 거둔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 7일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백 호준(호주)에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썬양은 이날 금메달로 아쉬움을 풀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금메달을 목에 건 썬양은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을 3개로 늘렸다. 썬양은 자유형 1500m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김민근기자

포그바, 역대 최고 몸값으로 4년 만에 맨유 컴백

차세대 세계 축구를 이끌 주역 폴 포그바(28)가 역대 최고 몸값으로 4년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9일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 소속의 미드필더 포그바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1년 추가 연장 옵션도 포함했다.
구단은 이적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은 약 1억5000만 유로(약 12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가레스 베일(27)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데려 올 때 지급한 1억100만 유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이적료다.
당시 베일의 이적료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영입할 때 건넨 9400만 유로를 넘는 최고였다.

/김민근기자

여자배구대표팀, 러시아에 덜미... 1승 1패

일본 누르고 두 경기 만에 패 남은 세 경기 2승1패 거두면 조 3위

40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러시아의 높이에 무너졌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배구 A조 2차전에서 러시아에 1-3(23-25 25-23 23-25 14-25)으로 패했다.
사흘 전 '숙적' 일본을 누르고 서전을 기본 좋게 장식한 한국은 두 경기 만에 첫 패를 당했다.
김연경(페네르바체)의 20점을 넣었지만 공격 성공률은 20% 인저리에 머물렀다. 이재영(7점·흥국생명)의 몸도 일본전보다 몸이 무거웠다. 양효진(현대건설)이

17점으로 분전했다.
190cm가 넘는 장신 선수들이 즐비한 러시아는 14개의 블로킹으로 한국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6개에 그쳤다.
타티야나 코셀레바와 나탈리아 곤차로바가 22점씩을 올렸다.
1승1패가 됐지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남은 세 경기에서 2승1패를 거두면 조 3위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홈팀이자 우승 후보인 브라질전은 쉽지 않더라도 아르헨티나와 카메룬에는 승수 쌓기가 가능한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A·B조 상위 4개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A조 1위가 B조 4위와 8강에서 맞붙는 방식이다. 조 2위와 3위는 추첨을 통해 대진이

결정돼 순위에 큰 의미가 없다.
기선을 제압한 쪽은 러시아였다. 1세트 20-20에서 이리나 페티소바와 나탈리아 곤차로바, 타티야나 코셀레바의 릴레이 득점이 터졌다.
한국은 김연경의 공격으로 따라 붙었지만 22-23에서 배유나(한국도로공사)의 결정적인 범실이 나오면서 세트를 내줬다.
2세트 초반은 블로킹과 서브의 싸움 양상을 띠었다. 196cm와 194cm의 높은 신장을 자랑하는 이리나 자라치코와 곤차로바가 김희진(IBK기업은행)과 김연경의 공격을 떨어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한국은 서브에서 해법을 찾았다. 김연경과 이재영이 예리한 서브로 민첩을 만들어내며 넘어갈 뻔한 기세를 다시 돌렸다.
2세트도 막판에야 희비가 갈렸다. 한국은 믿었던 리베로 김해란(KCC인삼공사)의 리시브 난조로 19-23에 몰렸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